

“대한민국 에너지 미래,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나주로”

도, 나주시 에너지산업의 날 기념식

미래 핵융합에너지 거점 도약 다짐

전남도는 나주시와 함께 제3회 에너지 산업의 날 기념식을 지난 17일 한국에너지 공과대학교(KENTECH)에서 열어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전남, 미래 핵융합 에너지

거점 도약’을 다짐했다.

전남 에너지산업의 날은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를 지향하는 전남도·산·학·연·관 기관의 자긍심을 높이고, 에너지산업 분야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조익노 기후환경에너지부 전력 산업정책관, 정현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 윤병태 나주시장 등 주요 내빈과 에너지기업 대표, 관계 기관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오늘의 약속, 내일의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나주시립합창단 식전 공

연, 개회사 및 축사, 유공자 시상, 도내 에너지기업 우수사례 발표, 퍼포먼스, 기념 촬영,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전남도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광래 가나아이엔지주 대표, 양수양 ㈜티디엘 이사에게 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이 외에도 나주시장장, 한국전력공사 사장장,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장,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장 등 17

명이 포상 또는 감사패를 받았다.

‘인공태양 연구시설’ 전남 유치 퍼포먼스에선 미래 핵심 에너지 기술인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통해, 전남이 미래 핵융합 에너지 기술의 중심지로 도약하길 염원하는 상징적 의미를 표현했다.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 속에 진행된 퍼포먼스는 전남의 미래 비전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행사 후반에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기업

의 네트워킹 시간이 마련돼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정현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이제 명 정부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AI 3강 도약과 에너지 대전환이 시작됐고, 그 중심에 전남이 있다”며 “대한민국의 AI·에너지산업의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구 기자 gnnews1@gwangnam.co.kr



18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2025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성과공유대회’에서 ‘복지기동대, 7년의 믿음과 앞으로의 약속’이란 주제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전남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명품 복지시책 우뚝

성과공유대회…7년간 전남 가구의 30% 생활안정 등 지원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대표 공약사업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명품 복지시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전남도는 18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성과공유대회를 열었다. 복지기동대는 지난 7년간 생활안정을 위해 전남 가구의 30%가 넘는 30만 가구를 지원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민선 7~8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2019년 4월 출범했으며, 현재 297개 모든 읍면동에서 5200여

명의 복지기동대원이 생활불편 개선과 생활안정 지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관 협력 기반의 성공적인 복지사례로 인정받아 2023년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사업에 선정, 2026년까지 103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전남도는 복지기동대 활동을 보다 촘촘하고 폭넓게 확대하고 있다.

이날 성과공유행사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구복규 화순군수와 시군 부단체장, 22개 시군과 297개 읍면동 복지기동대

원, 협력·협약 기관 관계자 등 약 1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기동대, 7년의 믿음과 앞으로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복지기동대 7년 활동 성과를 중심으로 시군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행사는 유공자 표창(41명), 성과평가 우수 시군 시상, 대화사, 축하공연, 청찬대원 릴레이 인터뷰, 시군 우수사례 발표와 복지기동대원 토크쇼 순으로 진행됐다.

복지기동대 성과평가 결과, 화순군이 대상 영예를 안아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고, 해남군이 최우수상, 완도군은 우수상을, 진도군과 여수시는 각각 장려상

을 받았다.

부대행사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복지위기관리캠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시·홍보부스가 운영돼 다양한 지역 복지 서비스를 홍보했다.

김영록 지사는 “복지기동대가 지난 7년간 이웃의 일상 속에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앞으로도 대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도록 든든히 지원하겠다”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대한민국 대표 복지 시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도록 정부에 적극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열 기자 holbul@

배진하 전 남구의원

민중 정책자문위원 임명

배진하 전 광주 남구의원(사진)이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정책자문위원에 임명됐다.

지난 13일 출범한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로, 자치분권을 기반으로 한 균형성장 정책의 입법과 예산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 의원은 “지역 소멸을 막고, 지방을 중심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도권 1극을 해체해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균형발전을 달성하는 ‘5극·3특 체제’의 지역별 성장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 광주시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배진하 의원은 6대·7대 남구의회 재선 의원이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인증 등 인허가 장벽·지자체 역할 강화해야”

광주시의회 시특위, 헬스케어 분야 3차 조찬 간담회

광주시의회 인공지능실증도시특별위원회는 1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3차 AI기업 조찬간담회’를 개최하고 헬스케어 분야에서 AI 활용 전망과 현장의 애로사항, 제도적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AI·의료·헬스케어 기업뿐 아니라 의료인·연구자·정책 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 필요사항을 폭넓게 교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발제에 나선 박병훈 티쓰리큐(주) 대표는 DX-AX 전주기 공통플랫폼(AIOS)의 필요성과 도메인 특화 에이전트 전략을 설명하며, “전국 병원과 함께 LLM 기반 대화형 헬스케어 에이전트 실증을 하고 있지만 GMP·GS·의료기기 인증 등 인허가 장벽이 높아 상용화 과정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

고 말했다.

이어 “헬스케어 AI 경쟁력은 공동 에이전트가 아니라 ‘도메인 특화 에이전트’에서 나오며, 광주는 이를 위한 생태계(OS)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AI 헬스케어 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제안이 제기됐다.

양국승 트레이스 대표는 “AI 중심도시 광주는 앞으로 데이터 중심도시로 전환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규제로 인해 데이터 가공·정제·공유가 어려운 만큼, 광주가 가진 실증·규제프리 환경을 활용해 데이터 확보와 활용이 쉬운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도안 광주시 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은 “광주시는 생체이식형·뷰티·디지털헬스 등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공통

데이터·플랫폼·에이전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 1단계를 마무리했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은 “헬스케어 AI가 효과를 내려면 지역 통찰돌봄 체계와의 연계가 필수”라며 “어르신 돌봄, 장애인 지원, 정신건강 관리 등 지자체가 수행하는 돌봄 서비스를 AI 기반으로 전환해 맞춤형 건강·복지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수훈 위원장은 “헬스케어 분야는 AI가 시민의 삶을 가장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영역”이라며 “기업과 기관의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광주형 AI 건강관리·통찰돌봄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특위는 21일 ‘미래도빌리티 분야의 AI 활용’을 주제로 4차 간담회를 개최한다.

정승기 기자 sky@

“지속가능 재정운용 체계로 복구 미래 대비”

정달성, 예산집행 효율화·재정확보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광주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이 18일 북구평생학습관에서 ‘광주시 복구 재정진단과 대응을 위한 예산집행 효율화 및 재정확보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복구 재정 현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화와 성과 중심의 재정 구조 개선, 주민참여형 재원 확보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방재정의 위기는 단순한 예산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 경직성의 문제”라며 “지자체 스스로 지속적인 재정진단체계를 구축하고, 지출 구조 재점검과 공유재산 활용, 소규모 수익모델 개발, 고향사랑 기부금 확대 등 재원 다각화를 통해 주민

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달성 의원이 좌장을 맡아 김봉진 광주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조선익 참여자치21 공동대표, 고영일 의원, 주민 등 50여 명과 함께 열린 토론회를 펼쳤다.

특히, 고영일 의원은 “재정관리의 성공은 예산의 집행이 아닌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정달성 의원은 “복구의 재정자립도는 12.5%로 광주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재정여건을 면밀히 진단해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체계를 확립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건전한 재정기반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에서 전국 지방의회 의원 협의회 대표들과 지방 선거 필승을 다짐하는 손뭉치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